

人文論叢

81권 2호

2024년 5월

일반 논문

북으로 간 국문학자 신구현

정종현**

경성제대 출신 독학자에서
주체문예학자가 되기까지*

초록 이 글은 월북한 국문학자 신구현의 삶과 학문의 궤적을 통해 근대 한국 지식사의 단면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12년에 태어나 2000년대까지 식민과 해방, 분단과 냉전을 가로지른 신구현의 인생은 근대 한국 지식의 굴절과 변형의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글은 우선 경성제대 시절 예과 11회 동기생들과의 독서회 활동, 졸업 후의 조선어학회 경력과 임화가 경영한 학예사에서의 『역대조선여류시가선』 출판, 조선공산당재건운동 사건으로 투옥되었다가 출소하여 정양 중에 해방을 맞이한 신구현의 식민지 시기의 삶과 학술적 이력을 검토하였다. 해방 이후 신구현은 원산 노력자 정치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김일성종합대학 설립과 더불어 교수로 임용되었다. 임용 이후 그는 김일성종합대학교 교직원 세포위원회 위원장, 조선어문연구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북한의 어문 개혁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일련의 숙청 과정을 거치면서 신구현의 학술적 정체성도 변화를 겪게 된다. 신구현은 이른 시기부터 실학과 및 고전문학과 카프의 사실주의 등 조선의 진보적 전통과 주체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다. 195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그의 학술은 점차 김일성이 강조한 주체적인 문예학으로 수렴되었다. 1960년대를 넘어서면서 마르크스주의에 토대한 경성제대 고전문학 전공자 신구현은 주체 사상을 설파하는 주체의 문예학자로 변화하게 되었다.

주제어 신구현, 경성제국대학, 학예사의 조선문고, 『역대조선여류시가선』,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연구회, 주체의 문예학, 고조선 서사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A2A01046090).

**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1. 지식인의 삶, 혹은 지식사의 방법론

이 글의 목적은 월북한 국문학자 신구현을 통해 식민지-분단-전쟁-냉전을 거치며 변용되고 굴절된 한국의 국문학 지식의 변화상의 한 단면을 검토하는 것이다. 오래 산 지식인은 그 자체로 방법론이 될 수 있다. 신구현은 식민과 분단, 냉전의 20세기를 가로지르는 삶을 살았다. 1912년에 태어난 신구현은 경성제대를 졸업한 뒤 학예사에서 『역대조선여류시가선』을 간행했고, 조선공산당재건운동사건으로 옥고를 겪었다. 해방 이후에는 김일성종합대학 교수이자 북한의 문예학자로 활동했다. 2002년에 간행된 통일부의 인명집에서는 신구현을 김일성종합대학 언어문학연구부 교수이자 조선문학강좌 연구사라는 직함으로 소개하고 있다.¹ 같은 해에 북한에서 간행된 『피 묻은 청동단검』²과 『고조선의 마지막 밤』³에서도 리규춘과 함께 원작자로 신구현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다. 신구현은 아흔이 넘는 나이에도 여전히 김일성종합대학 교수직에 있으며 고조선을 배경으로 한 장편소화를 쓰는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구십 평생의 삶의 궤적과 글을 분석하는 것은 곧 20세기 식민과 분단의 한국문학사의 한 단면을 재구성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이타가키 류타(板垣龍太)의 『북으로 간 언어학자 김수경』⁴에서 시사받은 것이다. 이 저서는 경성제국대학과 도쿄제국대학 대학원을 수료하고 해방 이후 경성대학 촉탁 및 자치위원회 위원, 경성경제전문학교 교수를 거쳐 김일성종합대학의 조선어문학과 교수가 되어 북한 언어

1 통일부(2002), 『북한 기관·단체별 인명집 2002』, pp. 367-368.

2 신구현·리규춘(2002), 『피묻은 청동단검』,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3 신구현·리규춘(2002), 『조선역사인물이야기그림책 성기(2) 고조선의 마지막 밤』,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4 이타가키 류타(2024), 고영진·임경화 옮김, 『북으로 간 언어학자 김수경』, 푸른역사. 일본어판은 板垣龍太(2021), 『北に渡った言語學者 金壽卿(1918-2000)』, 人文書院.

학계의 중심으로 활동한 김수경의 삶과 학문을 다룬 것이다. 김수경 개인의 역사, 한국전쟁으로 갈라진 이산의 가족사, 북한 언어학의 역사와 북한의 정치사를 씨줄과 날줄로 엮어 개인의 미시사를 20세기 한반도의 거시적인 역사와 연결시킨 역작이다. 본 연구는 “한 개인이라는 ‘작은’ 경험의 서술을 통해 식민주의와 냉전이 쌓아 올린 학문의 벽을 극복”⁵하는 성과를 거둔 그의 작업으로부터 직접적인 자극을 받아 시작되었다.⁶

홍종욱의 「제국의 사회주의자-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 이청원의 삶과 실천」⁷도 본 연구의 시각을 다듬는 데 도움을 준 연구다. 도사카 준(戸坂潤) 등이 결성한 ‘유물론연구회’에서 일본인 사회주의자들과 교류하며 역사학 저술과 비합법 사회주의 활동을 병행했던 이청원은 중일전쟁기 이후 통제 경제론과 민족협화론 등을 매개로 전향했다. 이청원은 해방 이후 북한 역사 학계를 주도했지만 1955년 무렵부터 민족 부르주아와의 연대를 경시하고 민족통일전선에 소극적이며, 민족주의에 입각한 단일발전론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조주의자, 종파주의자로 비판받고 숙청된다.⁸

5 이타가키 류타(2024), p. 477.

6 2020년 2월에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서는 이타가키 류타 교수를 초청하여 위의 저작의 기본적인 구상과 관련된 논문과 자료를 토대로 한 집중강의를 진행하였다. 이 집강의에서 필자 또한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문학부의 조선어문학과와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를 비교하는 구상을 발표하고 이후 논문으로 제출하였다. 정중현(2021), 「국어국문학과 조선어문학의 분단: 설립 초기 국립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와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의 비교연구」, 『동악어문학』 83집, 동악어문학회.

7 홍종욱(2021), 「제국의 사회주의자: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 이청원의 삶과 실천」, 『상허학보』 63, 상허학회.

8 전시기의 전향자들의 문제를 ‘사상’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홍종욱의 박사논문도 제국 시절의 사상과 주체성이 해방 이후 (남)북한에서 어떻게 변용되는가를 다루고 있다. 그는 여러 전향자 중에서도 김명식과 이정식, 박극채와 윤행중 등을 다루고 있는데 박극채와 윤행중의 통제경제론에 대한 경도가 북한에서 어떻게 변용되고 결국 숙청에 이르는가를 검토하고 있다. 이 또한 식민지-해방 이후의 주체성의 연속과 변용에 대한 논의로 특기할 만하다. 이에 대해서는 홍종욱(2011), 『戰時期朝鮮の轉向者たち』, 有志舎 참조.

식민지-해방-분단기를 횡단하는 한 역사학자의 주체성의 연속과 변형을 검토한 이 연구에서 유사한 학문 분과에서 활동한 신구현의 주체성의 변용을 문제화할 수 있는 관점을 배울 수 있었다.

이외에 특기할 만한 것으로 북한의 아카데미, 그중에서도 김일성종합대학 문학부 설립을 주도한 경성제대 독서회 출신의 젊은 사회주의 세대에 주목한 선행 연구를 거론해야만 한다. 김태윤의 「북한 간부이력서를 통해 본 일제 말 사회주의 운동과 네트워크의 연속성: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독서회 참여자를 중심으로」는 해방 이후 북한의 김일성종합대학이 식민지 시기의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독서회 출신의 사회주의 운동 네트워크와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논증하고 있다. 식민지 시기 ‘마지막 조선공산당 재건 움직임’이자 ‘해방 이후 시작된 조선공산당의 모태’로 평가되는 ‘경성콤폴그룹’은 북한 국가 건설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김태윤은 김일성종합대학 문학부 교원들의 이력서 등 당대 자료를 통해서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출신들, 그중에서도 1934년도 예과 11회 입학생들인 정해진, 이명선, 김수경, 김석형, 신구현 등을 비롯한 독서회 구성원들이 김일성종합대학 문학부 교수로 대거 임용되면서 “경성제대와 김일성종합대학이 학적 연속성뿐만 아니라 운동사적 연속성”⁹을 지녔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해방 전후 지식 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특정한 인적 집단의 존재에 대해 밝혀냈지만, 식민지 시기의 사상과 실천이 북한에서 어떻게 변형되며 새로운 주체성의 형성으로 이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본 연구의 관심인 신구현의 경우에는 자료를 오독한 부분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이상의 선행 연구를 참조하면서, 이 글에서는 경성제대 출신 고전문학자인 신구현 삶의 궤적과 그가 남긴 다양한 글들을 검토하여 식민지적 아

9 김태윤(2020), 「북한 간부이력서를 통해 본 일제 말 사회주의 운동과 네트워크의 연속성: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독서회 참여자를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p. 181.

카데미즘과 사회주의 독서회에서 학문적·사상적 정체성을 형성했던 젊은 사회주의 지식인이 북한 정치의 격랑 속에서 ‘주체’ 문예학자로 생존을 도모하며 변신해 가는 과정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북한 관련 자료는 여러 곳에 산재해 있어 접근과 종합에 어려움이 뒤따른다. 신구현 관련 자료는 미국의 국회도서관 디지털 자료실의 북한 잡지 아카이브, 일본 도시샤대학 코리아연구센터의 ‘코리아문헌데이터베이스’, 인하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북한 자료, 국립중앙도서관의 북한 자료 및 북한노획문서 중 김일성종합대학 관련 문서철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 아카이브에서 해방기로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신구현이 북한에서 남긴 글들을 찾아 활용했다. 본 연구에서는 경성제대 시절부터 1960년대 중후반까지의 신구현의 글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자료의 제약 때문이기도 하지만, 1960년대 중후반 이후 북한 사회가 ‘주체사상’으로 획일화되면서 학문사의 공백이라고 할 만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식민지 시기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신구현의 글과 정체성의 변용 과정을 따라가 보자.

2. 경성제대 출신의 여류문학 전공 독학자(篤學者)

신구현이 자필로 남긴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이력서’에 따르면, 그는 1912년 11월 4일에 출생했다.¹⁰ 김일성과 출생연도가 같다. 출생지는 따로 표기하지 않았지만 본적을 ‘경성 종로’라고 적고 있다.¹¹ 7살이 된 1918년 10월 5일 충북 괴산의 한 서당에 들어가 한문을 배웠고, 17세 때인 1928년

10 「金大(김일성대학)교원 이력서, 문학부」(총115쪽), NARA RG 242 SA 2011 Box Item 31 중에서 첫 페이지 신구현 이력서.

11 신구현을 충청북도 진천 출신으로 소개하고 있는 글도 있다. 전영선(2004), 『북한을 움직인 문학예술인들』, 역락, p. 82. 세대주인 부친의 본적을 따랐거나 아니면 종로에서 태어나 진천으로 이주했을 가능성도 있다.

4월 5일에 충북 청주공립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여 22세 때인 1933년 3월 31일에 졸업했다. 그 한 해 뒤인 1934년 4월 5일에 경성제국대학 예과(문과)에 입학했다. 평생을 함께한 동기생들인 김수경(1918년생)이나 김석형(1915년생) 등에 비해 대학 입학은 뒤늦은 편이었다. 3년의 예과 생활을 마치고 1937년 4월 1일에 조선어문학 전공으로 본과에 진학하여 1940년 3월 31일에 졸업했다.

신구현은 경성제국대학 재학 시절부터 독서회에서 활동했다. 1932년 예과 9회 입학생인 김재갑과 정진태가 원산노동조합운동에 투신하며 후배인 예과 11회의 고광학 등을 지도했다. 고광학을 중심으로 예과 11회 동기생들인 정해진, 이명선, 김수경, 김석형, 신구현 등이 이 독서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¹² 한홍구 교수가 입수한 정해진의 수기를 통해서도 예과 11회 동기생들의 독서회 활동을 가늠해 볼 수 있다. 1935년 무렵부터 정해진, 김석형, 김득중, 이종원 등은 ‘비밀독서회’를 시작했다. 독서회에서는 1935년 가을부터 일주일에 한 번 모여 크로포트킨의 『무정부주의론』 윤독과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독후감 발표 등을 했으며, 1937년 1월에는 독서회 회원 등 15명이 조선어학회의 조선어 강습(2주)을 받으러 가서 이윤재와 리극로 등에게서 문법과 철자법을 배우기도 했다. 정해진, 김석형, 박시형, 김수경, 김홍길, 신구현, 리명선 등은 매달 두 차례 정도 모여 조선의 역사, 문학, 철학 등을 변증법 및 역사적 유물론의 관점에서 발표했다고 한다.¹³

12 김태운(2020), p. 160.

13 한홍구는 정해진의 형인 독립운동가 정해룡의 전기를 집필 중에 동생 정해진의 수기를 단편적이거나 입수하였고, 그 자료를 이타가키 류타에게 제공하였다. 이타가키 류타(2024), pp. 80-82. 이러한 독서회 활동에 대해서는 김수경을 모델로 한 북한인의 실화소설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김수경이 분단으로 이산되어 캐나다에 살고 있던 아내 이남재에게 보낸 편지에 따르면, 실화소설 창작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북한에서 김일성대학 설립 50년을 맞이하여 어문학부 문학 창작 강좌 교원이자 작가이기도 한 리규춘이 대학과 관련된 여러 교수 및 졸업생에 대한 청취 조사를 하면서 김석형, 박시형, 신구현, 김수경 등 4명의 원로 교수를 기본 인물로 하여 그들의 월북에서 조선지식인대회 참가(1992)까지를 그리는 ‘실화소설’을 구상했다고 한다. 실제로 완성된 것은 김수경을 주인공으로 한

경성제대 독서회 조직은 이화전문과 연희전문 등 경성 시내의 다른 학교 학생들도 포섭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이화전문은 “전적으로 신구현이 맡아 그곳의 영문학부를 중심으로 ‘독서회’를 비밀리에 운영”¹⁴했다고 전한다. 훗날 언어학자 김수경을 모델로 한 북한의 실화소설은 경성제대 법문학부의 독서회 성원들이 명사들을 찾아 배우기로 결의하면서 당시 조선어학회에서 활동하고 있던 이극로 등을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¹⁵ 사후적이고 허구가 가미된 소설적 형식으로 전해졌지만, 앞서 살펴본 정해진의 수기나 해방 직후 신구현이 남긴 이력서의 기록과 겹쳐 보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구현은 경성제대를 졸업하자마자 ‘조선어학회 조선어사전편찬위원’으로 근무했다고 이력서에 적고 있는데, 이러한 경력은 학부 재학 시절부터 조선어학회에 찾아가 맞춤법 통일안에 관한 이극로의 강의를 들었다고 전하는 실화소설의 기록과 부합하기 때문이다.¹⁶

신구현은 1941년 3월 31일부터 중앙중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었지만, 6개월여 만에 ‘조선공산당재건운동사건’, 일명 ‘경성콤그룹’ 사건으로 검거되면서 곧바로 파면되었다. 경성콤그룹은 식민지 시기 “국내운동자의 최후의 결산적 집결체”¹⁷로 해방 이후 조선공산당의 모태가 된 조직이었다. 이 조직에는 이재유·미야케 사건에 연루된 정태식과 더불어 김태준 등 경성제대

『삶의 메부리』(1996)와 김석형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 『신념과 인간』(2001)의 두 권이었다. 이타가기 류타(2024), p. 465. 이 실화 소설에 따르면, 경성제대 예과 11기 동기생들이 포함된 독서회 구성원들은 “낮에는 강의실에서 부르조아 철학을 강의받고 밤이면 모여서 맑스-레닌주의 철학과 경제학을 독파했으며 선진국가의 정책에 대하여 학습했다.” 리규춘(1996), 『장편실화: 삶의 메부리』,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p. 19.

14 리규춘(1996), p. 19.

15 리규춘(1996), p. 20.

16 이충우와 최종고의 조사에 따르면, 김수경·정해진·신구현·이명선 등 10여 명이 조선어학회 사무실에 가서 새로 제정한 맞춤법 통일안에 관한 이극로의 강의를 한 달여 간 열성적으로 들었다고 한다. 이충우·최종고(2013), 『다시 보는 경성제국대학』, 푸른사상, p. 288.

17 신주백(1991), 「박헌영과 경성콤그룹」, 『역사비평』 13, 역사문제연구소, p. 267.

출신들이 가담하고 있었다. 경성제대 법문학부의 독서회 출신들도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 신구현은 동기인 최학선과 더불어 경성콤그룹의 기관지인 『선전』을 배포한 죄목으로 검거되었다.¹⁸

그렇다면 사회주의 운동을 하던 그즈음 신구현의 학문적 정체성은 어떠한가? 해방 전까지 그가 출판했거나 저널리즘에 발표한 것은 『역대조선여류시가선』,¹⁹ 「울곡 선생의 어머니 신사임당 평전」, 「시인 난설헌 허씨」 등의 세 편의 글이다. 식민지 시기 신구현이 간행한 유일한 단행본인 『역대조선여류시가선』은 1차문헌에서 여류작가가 쓴 한시 205수를 추려 내어 한글로 번역하고 주석을 단 것이다. 여기서 이 단행본이 학예사의 <조선문고> 시리즈로 출판되었다는 점은 각별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 최남주의 출자로 설립된 학예사는 실질적으로는 임화가 운영하며 편집과 기획을 도맡고 있었다. <조선문고>는 이와나미문고와 같은 장정과 외형, 그리고 편집을 지향했다. <조선문고>는 1부 ‘조선고전’, 2부 ‘현대문학’, 3부 ‘번역물’로 분류되며 그 안에 다시 도서의 번호를 부여받아 ‘1부 1책’의 방식으로 붙었다. 신구현의 『역대조선여류시가선』은 1부 ‘조선고전’의 1-5번을 부여받아 간행되었다.

장문석의 연구에 따르면, 임화는 마르크스주의적 세계 인식의 틀 속에서 세계적인 보편성을 염두에 두면서 조선의 특수성을 사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임화의 이러한 인식은 경성제대 출신의 김태준을 만나면서 <조선문고>로 구체화되었다. 김태준은 1930년대 초반부터 조선의 특수성에만 매몰된 ‘국학적 연구’에 비판적 거리를 취하면서, 사회경제사적 시각을 기본으로 한 ‘사회학적 연구’로 자신의 학문적 입장을 규정했다.²⁰

18 김태윤(2020), pp. 163-164. 이력서에서 신구현 자신이 1941년 9월 17일에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사건 피검’으로 중앙중학교원에서 파면되었다고 쓰고 있다.

19 신구현 역주(1939), 『조선문고 1-5 역대조선여류시가선』, 학예사(인쇄일 10월 4일, 발행일 10월 8일).

20 김태준, 「조선학의 국학적 연구와 사회학적 연구」(상~하), 『조선일보』 1933.5.1.~5.2.

어쩌면 이러한 김태준과의 만남이 임화가 ‘전통’을 발견하게 된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을지도 모른다. <조선문고>의 기획은 이후 임화가 제출하게 될 ‘이식문화론’과 문학사 서술의 변증법이라고 할 ‘1부 조선고전’, ‘3부 번역물’, ‘2부 현대문학’의 틀을 갖추게 된다. 즉, 전통(1부 조선고전)과 이식(3부 번역물)이 결부되어 현재의 신문학(2부 현대문학)이 발전한다는 문학사 서술의 방법론이 <조선문고>의 체제에서 준비되었다는 것이다.²¹

<조선문고>에서 발간한 ‘조선고전’의 목록은 <1-1 원본추향전(김태준 해제)>, <1-2 청구영언(김태준 교열)>, <1-3 김립시집(이용수 편주)>, <1-4 고려가사(김태준 교주)>, <1-5 역대조선여류시가선(신구현 역주)>이다. ‘1부 조선고전’으로 기획된 것은 더 있었지만,²² 실제 간행된 것은 이상의 다섯 권이었다. 그중에서 김태준이 해제·교열·교주한 것이 세 권이다. 나머지 두 권을 편역한 것도 김태준의 경성제대 법문학부 후배들인 이용수와 신구현이었다.²³

신구현의 『역대조선여류시가선』의 간행은 학예사 <조선문고>의 고전 편찬을 주도한 김태준의 개입을 빼놓고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다. 신구현이 아직 경성제대에 재학 중이던 1939년에 김태준은 다카하시 토루의 추천에 의해 조선어문학 관련 강의를 하고 있었다. 김태준과 신구현은 경성제대 선 후배이면서 사제 관계이기도 했다. 김태준은 1940년 5월 무렵부터 ‘경성콤 그룹’에 관여하기 시작했으며, 1941년 초에 투옥이 되었다가 1943년에 출옥했다. 김태준의 투옥과 출옥은 신구현의 궤적과 겹친다.

이들의 관련성은 『역대조선여류시가선』의 신구현의 서문을 통해서도 가늠할 수 있다. 신구현은 ‘조선여류문학’을 “조선문학과 존재를 달리한 특

21 이상의 내용은 장문석(2009), 「출판기획자 임화와 학예사라는 문제들」, 『민족문학사연구』 41, 민족문학사연구소.

22 <조선문고> 미발간 고전 관련 도서목록은 장문석(2009), p. 389.

23 신구현은 예과 11회(1937년 입학)이며, 이용수는 1936년 본과에 직접 입학했다. 둘 다 월북해서 북한에서 활동했다.

수문학이 아니라 생산자가 여류들로서 조선문학의 일면”이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여류문학은 “아직 태생기에 있”으며 “과거의 그들의 남긴 한시와 가사만이 우리들의 비판을 기다릴 뿐”²⁴이다. 하지만 “비판은 고사하고 재료 수집도 완성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신구현은 “문학사적으로 볼 때 가사와 같이 한시도 가치를 품고 있을진대, 가사와 아울러 한시도 하루바삐 수집하여, 금일 명일의 지양을 위하여 하루바삐 청산하는 것이 과거의 우리들의 임무이었던 것”²⁵이라고 강조한다. 신구현의 이러한 인식은 과거의 한문학사를 정리·청산함으로써 새로운 조선문학사의 출발을 돕고자 ‘한문학사’를 서술했던 김태준의 인식과 입장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취지 아래서 신구현은 한시와 가사의 재료 수집에 착수했으나 “복잡한 사정으로 재료로서 한시만을 먼저 내놓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신구현은 이후 “양반이라는 특수계급과 관련” 속에서 여류문학을 ‘규방여성’의 한시와 ‘기첩’(妓妾)의 한시로 나눈다. 그는 규방여성들을 양반의 도덕률에 갇혀 봉건도덕에 대한 반항과 동시에 찬양하는 분열적 상황 속에서 ‘히스테릭한 순간의 부르짖음’을 드러내는 등 모순된 이중인격 속에서 ‘단명요사’(短命夭死)했던 존재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기첩도 “양반관료들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계급”으로서 “기생충적 존재”였다고 규정한다. “규수들이 읊은 세계가 깊고 좁은 규방 내에서 병적 정신상태에서 읊조린 비현실적인 것이라면, 기첩들의 것은 자기 스스로 보고 듣고 하여 실제로 체험한 현실적인 세계”라는 차이를 가졌지만, 그 근본 사상은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조선 여류시가에 대한 그의 결론적 주장을 들어 보자.

과거에 난삽한 한문한자를 가지고 시를 지은 여성들이 있는데 그들은

24 신구현 역주(1939), 『조선문고 1-5 역대여류시가선』, 학예사, p. 3.

25 신구현 역주(1939), p. 4.

모두 양반관료들과 사회적 관계가 있어 분리못할 사람들이며, 그들의 옳은 시는 문학적이라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어 과거의 사회제도를 검토하는 데 중요한 재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고만이다. 이 책의 가치도 결국 이 점에 있을 줄 안다.²⁶(밑줄: 인용자)

신구현의 이 저술에는 맑스주의적 세계 인식과 아카데미즘에서의 조선 연구가 결합되어 있는 양상이 잘 드러나 있다. 춘향전에서 계급의 문제를 읽었던 천태산인 김태준의 시각과 유사하게, 신구현도 이들 여류문학을 조선의 봉건적 질서 속에서 양반 계급의 문제성을 드러내는 재료로 이해하고 있다. 여류문학에 대한 신구현의 관점은 1차 자료를 중시하고 그것을 실증하는 경성제대 아카데미즘과 의식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가 결합된 진보적 관점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서문에서는 양반 계층과의 관련성이라는 계급적이고 사회적인 측면만을 강조함으로써 그 작품들에 대한 문학적 접근이 애초에 차단되고 마는 아쉬움을 느끼게 된다. ‘여류문학’에서 부정적 사회성만을 주목하는 이러한 인식 속에서는 ‘여류문인’들의 다채로운 ‘욕망’과 열망을 담고 있는 개별 작품들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차단될 수밖에 없었다.²⁷

다시 신구현의 식민지 말기의 경력으로 돌아가 보자. 그는 1943년까지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병보석으로 출소했으며 정양하던 중에 해방을 맞이했다고 이력서에 적고 있다.

26 신구현 역주(1939), p. 10.

27 『역대조선여류시가선』 외에 식민지 시기에 쓴 신구현의 글은 다음과 같다. 신구현(1939. 9.), 「울곡선생의 어머니 신사임당평전」, 『여성』, 조선일보사출판부; 신구현(1939. 12.), 「시인 난설현 허씨」, 『여성』, 조선일보사출판부. 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여성 문인인 신사임당과 허난설헌의 일생과 작품을 해설하고 있는 이 두 편의 글을 통해서도 신구현이 ‘여류문학’을 자신의 특화된 전공으로 내세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신사임당 관련 글의 마지막 부분의 저자 소개란에서는 “조선문학사 중 여류문학을 전공하는 독학자(篤學者)”로 적고 있다.

3. 김일성종합대학 임용과 조선어문연구회 활동

신구현 자신이 적고 있는 해방 이후의 이력을 따라가 보자. 1945년 9월 10일에는 조선공산당재건운동 사건으로 파면되었던 중앙중학교 교원으로 복귀했으며, ‘공청’(共靑) 서울시위원회 중구 학생세포책임자로 활동했다. 이력서에 따르면, 신구현은 1946년 1월 6일이 되어서야 조선공산당에 입당했으며, 이때 가입 보증인으로 엄형순(廉衡淳)과 김영준(金榮俊) 두 사람을 내세웠다. 김태윤의 연구에서는 신구현의 이력서상의 당 가입 보증인을 ‘엄??과 김태준’으로 읽고 있다.²⁸ 이력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흐릿하긴 하지만 ‘엄??’은 ‘廉衡淳’(엄형순)이고 ‘김태준’은 ‘金榮俊’(김영준)을 흘려 쓴 것을 잘못 읽은 것으로 보인다. 신구현이 보증인으로 적은 이름의 가운데 글자는 김태준의 ‘태’자와는 아예 한자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같은 서류철에 합철된 최학선, 고광학, 김택원 등의 이력서에서 당 가입 보증인이 김태준이고 경성제대라는 학연 때문에 흘려 쓴 한자를 의심 없이 김태준으로 읽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신구현의 당원 가입을 보증할 만한 활동가 김영준이 누구인가는 특정할 수 없었다.²⁹ 엄형순은 신구현의 2년 후배인 예과 13회 문과(을류) 입학생으로 국사학과를 졸업했다. 엄형순의 식민지 시기 활동상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해방 이후의 행적은 당시 신문 기사를 통해 그 편린을 살펴볼 수 있었다. 『동아일보』의 1947년 12월 13일자 기사에서는 “서울지방검찰청 오제도 검찰관이 문초를 계속하여 오던 바 11일 피고중 남로당조직부원 겸 충남조직부 연락책임자 엄형순”을 비롯하

28 김태윤(2020), p. 171.

29 경성제대 법문학부 졸업생 중에 김영준이 존재한다. 김영준은 경성제대 예과 2회 입학생으로 1927년에 예과를 수료하고 1930년에 영문과를 졸업했다(『조선총독부관보 제0076호-경성제국대학예과수료생』, 1927. 4. 4., p. 7; 『조선총독부관보 제0979호-경성제국대학법문학부졸업자』 1930. 4. 11., p. 5). 하지만 식민지 시기나 그 이후에 김영준이 좌익 관련 활동을 한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다. 때문에 신구현의 입당 보증인을 경성제대 2회 졸업생 김영준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여 6명의 ‘8·15폭동음모사건’ 관련자를 기소했다고 보도하고 있다.³⁰

염형순은 체포된 지 1년여 안쪽에 풀려나온 것으로 보인다. 1년 여 뒤에 다시 체포된 기사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1949년 5월 10일자 신문은 서울시 경찰국 사찰과에서 “3일 새벽 1시경 시내 모처에서 밀의 중이던 남로당 중앙지부 지방과 책임자 염형순과 또 간부 최종덕 외 16명을 현장에서 검거”하였고, “기관지인 「노력인민」 수만부와 인쇄기를 압수하고 염중 문초중”이라고 보도하고 있다.³¹ 2년 후배인 염형순이 신구현의 입당보증인이라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입학의 선후 관계와 무관하게 조선공산당 입당의 선후에 따라 보증인과 피보증인의 관계가 성립했다는 사실이다. 이를테면, 김일성종합대학 문학부 교원 중 엄무현의 이력서에는 입당 보증인으로 신구현이 적혀 있다. 1926년에 경성제대 예과 3회로 입학한 엄무현은 경성제대 예과 11회인 신구현보다 8년 선배였지만 입당일자가 늦었기 때문에 당원인 신구현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조선노동당에 입당할 수 있었다.

다시 이력서의 행적을 따라가 보자. 조선공산당에 입당한 신구현은 1946년 2월 5일부터 원산시의 노력자 정치학교(뒷날의 당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신구현은 적어도 1946년 3월 이전에 월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이력서의 비고란에 신구현은 자신의 입당처리가 1946년 3월 6일 원산시당에서 이루어졌다고 별도로 기록해 두었다. 해방 직후 남한에서 입당을 신청하고, 월북 후 조선공산당 원산시당에서 그의 입당이 검토되고 최종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신구현은 자신의 김일성종합대학 임용일을 1946년 8월 16일로 기록하고 있다. 김수경과 김석형의 삶을 모델로 한 리규춘의 실화소설인 『삶의 메부리』와 『신념과 인간』에서는 신구현과 김수경, 김석형 등이 서울에서 함께 있다가 김일성종합대학 초빙 위촉장을 받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³² 김수경

30 『동아일보』와 『서울신문』 1947년 12월 13일자 참조.

31 「남로당원 체포」, 『자유신문』 1949년 5월 10일자.

32 김수경도 “1946년 8월 16일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 김수경 귀하, 귀하에

의 이력서에는 자신이 1946년 8월 20일부로 김일성대학 교원으로 위촉되었다고 적혀 있다. 김석형과 박시형의 이력서에서는 날짜는 없이 8월로만 명기되어 있다. 신구현의 경우는 일찍 월북하여 원산에서 근무하다가 김일성종합대학에 초빙되어 평양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러 기록에서 발령 시기가 며칠씩 차이가 있거나 위촉 당시 거주하고 있던 곳이 다르게 묘사되었지만, 경성제대 법문학부 예과 11회를 중심으로 한 신진학자들이 거의 동시에 집단적으로 김일성종합대학 문학부 교원으로 발령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성제대 동기생들의 우정과 정치적 신념으로 맺어진 친밀한 인적 네트워크가 이들의 월북과 김일성종합대학으로의 이동을 촉진하는 매개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47년 1월 6일 현재 김일성종합대학 문학부 소속 교원 40명 중 경성제대 법문학부 출신자들은 총 12명이다. 그들은 김일성종합대학이 개교하며 초빙된 초창기 교원들이었다.³³ 그러다가 다시 초창기 교원들을 심사하여 새로 발령했는데, 1947년 3월 7일자로 발령된 22명 중 9명이 경성제대 법문학부 출신들이었다.³⁴ 경성제대 법문학부 출신들, 그중에서도 특정한 세대가 대거 김일성종합대학으로 간 까닭은 무엇일까? 신생 김일성종합대학이 직면한 최대 고민은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는 문제였다. 김일성종합대학은 당시 북한에 체류하고 있던 진보적 지식인들을 초빙했지만, 제대로

계 북조선 김일성대학의 교원을 위촉함"이라는 위촉장을 받는 것으로 묘사된다. 리규춘(1996), 『삶의 메부리』, p. 32. 김수경을 찾아온 박시형과 김석형이 김일성 대학 위촉 의사를 전했고, 조금 늦게 찾아온 신구현이 김일성의 위촉장을 가지고 온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신구현이 이미 월북하여 원산 노동자정치학교 교장이 되었고, 8월에는 김일성대학 교원이 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신구현이 동기생들의 김일성대학 행에 모종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33 '김일성종합대학 문학부 소속 교원 명단-1947년 1월 6일 현재', 정종현(2021), pp. 75-77. 경성제대 법문학부 출신은 신구현, 박종식, 노대규, 한재호, 이영수, 김수경, 최학선, 고팡학, 박시형, 김석형, 임무현, 김득중이다.

34 정종현(2021), p. 81. 교원심사를 통해 발령을 받은 경성제대 법문학부 출신들은 김수경, 박종식, 노대규, 한재호, 이영수, 박시형, 김석형, 최학선, 신구현이다.

된 교수진을 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김일성은 「남조선에서 인테리들을 데려올 데 대하여」(1946. 7. 31.)³⁵를 통해서 우수한 남한의 학자들을 교수로 채용하는 방침을 밝혔다.

김석형과 박시형, 신구현과 김수경 등 경성제대 예과 11회생들은 이러한 북한 정권의 필요에 적합한 대상이었다. 초창기의 김일성종합대학교는 서울대학교 못지 않게 제국대학의 인적 집단을 승계했다. 아카데미 출신의 전문성이 요구되었지만 동시에 인민의 대학을 표방했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적 세계인식과 실천을 지향하는 지식인이 필요했다. 독서회 활동과 경성콤그룹 및 그 후속 조직인 조선공산주의협의회³⁶ 사건에 연루되어 옥살이를 경험한 경성제대 예과 11회생들은 제국대학이라는 전문성(엘리트)과 사회주의적 사상성 및 실천의 경력이 결합된, 북한 정권이 바라던 최적의 교원 후보자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예과 11회생들의 입장에서 김일성종합대학은 어떻게 다가왔을까? 토지개혁의 결과로 받은 농토에서 얻은 소출을 자발적으로 헌납한 애국미 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인민의 대학’에서 복무한다는 진보적 지식인의 자긍이 그들을 이 대학으로 이끌었겠지만, 보다 현실적인 이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과 11회 입학생들은 경성제국대학의 초창기 졸업생들 즉 1·2·3회생들에 비해서 10년여의 차이가 있는 신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사상에 공명하고 있던 그들은 미군정에 의해 포고된 ‘국대안’과 서울대학교의 출범에 비판적이었다. 국대안 논의의 비민주성 등에 대한 비

35 『김일성전집』 4(199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pp. 66-69.

36 김태윤은 김일성종합대학 문학부의 교원 이력서에서 경성제대 11회 입학생 김석형, 박시형, 김득중이 조선공산주의자협의회 활동으로 함흥 형무소 수감 이력을 적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그들의 형무소 수감 기간과 수감처는 당 가입 보증인인 서중석의 투옥 시기 및 장소와 일치한다. 1944년 결성된 조직인 공산주의자협의회는 일본의 패전을 예상하고 국의 무장투쟁과의 연계를 모색했던 단체였다. 소련에 김재갑과 김재수를 연안에 김태준을 파견하여 무정과 김일성과의 국내의 군사대책을 논의하도록 했다고 한다. 이 여정을 적은 것이 김태준의 『연안행』이었다. 김태윤은 이 조직을 경성콤그룹의 후속단체로 이해하고 있다. 김태윤(2020), p. 165.

관과 더불어 현실적인 차원에서도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새로 출범하는 서울대학교의 문리과대학에 이들 젊은 세대의 자리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경성제대 시절 김수경과 사제 관계였던 언어학자 고바야시 히데오가 패전 이후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에 들은 바에 따르면, 김수경은 조교수로서 언어학 강좌를 승계할 것으로 ‘내정’되어 있었다고 한다.³⁷ 경성대학 자치위원회 내부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구상은 미군정에 의해 무산되었다. 나중에 실제로 그 강좌를 맡은 것은 이희승이었다.

국대안의 파란을 거쳐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와 교수진은 가람 이병기, 조윤제, 방중현, 이희승, 이승녕의 다섯 명의 전임교수 체제로 자리 잡았다. 김일성종합대학으로 전직하기 전에 11회 예과생들 대부분은 중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대학에 자리 잡았던 것은 경성경제전문학교(국대안 이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의 김수경과 서울대 사범대학에 출강하던 김석형 정도였다. ‘조선학(한국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과거 ‘문학부’의 후신인 문리과대학의 전임 교수직은 선배들의 자리였다. 때문에 이들 신세대들에게 새로 설립된 김일성종합대학의 ‘문학부’ 전임교원 임용은 남한에서는 보장되지 않는 안정적 위치에서 그들의 학문적 포부를 펼칠 기회로 여겨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설립 초기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신구현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이력서에서 그가 적은 현재의 ‘담당 공작’은 ‘조선노동당 평양시 김일성종합대학교 교직원 세포위원장’이었다. 세포위원회는 노동당의 말단에서 기능한 최일선의 조직이다. 신구현은 열성적인 당원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문학부 학부장인 박극채는 조사서에서 신구현을 “성실 침착”하며 “가장 열성적으로 근무함”이라고 평가하고 있다.³⁸ 당시 그가 대학에서 맡았던 강

37 이타가키 류타(2024), p. 120.

38 「金大(김일성대학)교원 이력서, 문학부」(총115쪽), NARA RG 242 SA 2011 Box Item 31 중에서 첫 페이지 신구현 이력서 중 세 번째 페이지의 박극채 조사서, 경성제대 동문들의

의는 경제법학부의 ‘조선어’, 역사문학부의 ‘조선어’ ‘조선문학’ 강좌였다.³⁹ 역사문학부에서 조선어문학 전공생들에게 조선어와 조선문학의 전공과목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경제법학부 학생들에게 필수교과목인 조선어 강의를 함께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학생 교육과 더불어 신구현은 북한의 어문정책을 전담하게 될 ‘조선어문연구회’의 설립에도 관여했다. ‘조선어문연구회’의 설립과 전개에 대해서는 신구현 자신이 1949년도에 쓴 「조선 어문의 통일과 발전 사업에 있어서 우리들 조선어문 학자들의 당면 과업」⁴⁰에 상세한 설명이 남아 있다.

이 글에서 신구현은 ‘조선 어학자들의 조선 어문의 통일과 발전을 촉진시키는 사업에 있어서’ “인민적 립장에서 그들의 사상적 단결과 통일을 촉진시키는 조직체의 존재의 필요성”⁴¹이 절실했다고 적고 있다. 1946년 개교한 김일성종합대학의 ‘력사문학부’ 내에 조선어문학 강좌가 설립되자 진보적 언어학자를 망라하게 되었으며, 이 강좌에서 “김일성 장군이 명시한 로선과 지시에 립각하여 직접으로 총장이시던 김두봉 선생의 엄격한 지도 하에 자기 사업을 전개”⁴²하였다고 설명한다. 이 강좌가 내세운 절실한 두 가지 문제는 “조선 어문을 재건하는 것”과 “선진 쏘베트 언어 리론을 받아들이는”⁴³ 것이었다. 첫 번째는 ‘조선어 문자 개혁’으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선어 철자를 형대주의적 원칙에서 개혁”하는 사업이 진행되었고, 둘째 문제는 “H. A. 마르의 신 언어 리론과 그의 직접 후계자인 메쉬차니노

실화소설에서 신구현은 “언제나 즉흥적이고 대단한 정서파”이자 “감동파”로 그려진다. 리규춘(1996), 『삶의 메추리』, p. 47. 그만큼 열정적이고 활달한 성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9 ‘북조선김일성대학 학과담당교수표(1947.3.1.)’, 「김일성대학 발령건, 북조인위교육국(1947년도)」 NARA RG242 SA2006 Box12 Item 32.1, pp. 381-389.

40 신구현, 「우리 어문의 통일과 발전 사업에 있어서 우리들 조선어문 학자들의 당면 과업」, 『조선어연구』 제1권 제8호, 조선어문연구회, 1949. 12.

41 신구현(1949. 12.), pp. 8-9.

42 신구현(1949. 12.), p. 10.

43 신구현(1949. 12.), p. 10.

프의 이론을 그의 저서를 통하여 받아”⁴⁴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⁴⁵

1947년에는 조선어문연구의 보다 높은 발전과 지도를 위하여 김일성종합대학 안에 ‘조선어문연구회’를 설치하였다. 신구현이 위원장을 맡은 김일성종합대학 내의 조선어문연구회는 문법, 철자법, 가로쓰기, 한자 처리 등 당면한 문제를 연구하여 ‘조선어신철자법’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그 진척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로 신구현이 1947년 10월 『로동신문』에 기고한 조선어문연구회의 경과 보고가 남아 있다.

1947년도 당면 과업으로서 철자 문제 한자 문제 횡서 문제는 소정 기일에 해결하겠음 사업을 추진시키고 있다. 횡서문제는 직접 김두봉 선생 지도 밑에 진행되어 그 인쇄체 원안이 작성되어서 방금 진행과정에 있는 북조선 김일성대학 창립 1주년 기념전람회에 공개하여 여론을 조사하고 있으며 일방 활자를 제작하며 여러 각도로 검토하는 외에 타자기 제작의 준비까지 하고 있다.

철자 문제는 주로 김수경 선생이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철자 문제는 횡서 문제와 관련이 있는 문제인 만큼 신중한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한자 문제는 전문수 한수암 신구현 세 분이 연구하여 원안 작성에 가까웠으며 지금 일방 여론을 조사하고 있다.⁴⁶

신구현은 당면 과업의 세목과 그 담당자들을 밝히고 있다. 횡서(가로쓰기) 문제는 김두봉이 직접 관여하여 가로쓰기 활자체가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고, 철자 문제는 김수경이 그리고 한자 문제는 신구현을 포함한 전문수, 한수암 등의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 국어학자들이 담당하고 있음을

44 신구현(1949. 12.), p. 10.

45 신구현 자신도 이 무렵 세르주첸코의 「언어학의 당면 과업」, 『조선어연구』 제2권 제2호(조선어문연구회, 1950. 5.)를 번역했다.

46 신구현, 「朝鮮語文研究會에 賦課된 事業」, 『로동신문』 1947. 10. 9.

알 수 있다.

이후 ‘조선어문연구회’는 북한 내각 산하 조직으로 격상된다. 1948년 10월 2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 결정 제10호로서 ‘조선 어문의 통일과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을 조직하고 집행하는 기구로서 기존의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소하고 교육성 산하에 새로이 ‘조선어문연구회’를 설치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새로운 ‘조선어문연구회’는 ‘조선어 문법 교과서’와 ‘조선어 사전’의 공간을 추진하였고 1949년 말경에 『조선어문법』은 간행되었으나 『조선말사전』은 교정 중에 한국전쟁이 시작되며 중단되었다. 신구현은 이러한 성과에 대하여 “김일성 장군의 말씀은 우리를 고무시키었으며, 선진 쏘베트 언어학의 정점과 혁명적 리론은 크나큰 도움과 교훈으로 되었고 김두봉 선생의 정확한 언어학적 견해는 우리들의 사업 추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⁴⁷라며 이 사업이 김일성의 격려와 김두봉의 언어학적 견해를 통해 지도받고 소련의 선진이론을 활용한 것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국가 설립 시기 신구현은 김일성종합대학의 조선노동당 교직원 세포위원장, 역사문학부 조선어문학과 교수, 조선어문연구회 위원장을 맡아 ‘조선 어문’의 정리와 발전에 한 축을 담당했다. 그가 자신이 포함된 조선어문연구회의 경로를 설명한 이 논문을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신구현이 건국 당시 조선 어문학자들의 중요한 성과로 꼽았던 그 사항들은 곧바로 전면적인 비판을 받게 되고, 그 자신도 자신의 과거 경력에 침묵하거나 부정하는 글들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47 신구현(1949. 12.), pp. 21-22.

4. 숙청 정국에서 생존의 글쓰기

한국전쟁의 휴전 이후, 북한에서는 남로당에 대한 숙청이 시작되었다. 이때 임화, 이태준, 김남천 등 남로당 계열의 작가들도 함께 숙청된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대부분 남쪽 출신이었던 학술·문화계에서 활동하던 경성제대 출신 지식인들 중 신구현과 동기생들은 이런 숙청의 광풍에서 살아남았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신구현은 조선공산당 재건 운동 사건에 연루되어 투옥되었으며, 임화가 경영했던 학예사에서 〈조선문고〉 시리즈 중의 한 권을 집필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해방 후에는 임화가 주도했던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 산하 조선문학건설본부의 회원으로도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⁴⁸ 남한 출신의 월북자들이었던 김일성대학의 경성제대 그룹은 북한 체제에서 오랫동안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며 학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들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

그 단서를 김석형을 모델로 한 장편실화 『신념과 인간』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김석형의 회고에 토대를 두었을 이 소설에 따르면, 1944년 무렵 ‘한양목장’에서 서중석이 ‘신구현, 박시형, 조명선, 정해진’ 등 경성제대 독서회 출신들을 모아 ‘전민항쟁무쟁대열’ 확대를 위한 조직을 만들었고, 김석형이 서울지구의 책임자가 되었다. 함흥으로 향하던 조직원이 체포되어 이후 검거 선봉이 붙었고 김석형이 체포되었지만 고문을 견뎌내고 조직의 비밀을 끝까지 지켜 냈다고 설명하고 있다.⁴⁹ 실제로 1946년에 작성된 김석형과 박시형 등의 이력서에 기입된 당 가입 보증인은 서중석이었다. 『신념과 인간』에서는 서중석을 김일성이 파견한 공작원이었다고 적고 있으며, 김일성 자신도 회고록에서 서중석을 자신이 파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⁵⁰ 요

48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 결성」, 『매일신보』 1945년 8월 18일자.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 산하 조선문학건설본부 회원 명부에서 그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49 리규춘(2001), 『신념과 인간』, pp. 27-31.

50 『세기와 더불어(계승본)』 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pp. 354-355. “경성(서울)지구 무

컨대, 북한에서 경성제대 독서회 출신의 젊은 사회주의자들은 남로당 계열이 아니라 김일성의 항일유격대에서 직접 파견한 조직원 서중석에 의해서 지도된 직계로 승격된 셈이다.

서중석이 김일성의 지도를 받았던 조직원이라는 주장은 여러 정황상 신빙성이 떨어진다. 1904년생인 서중석은 신홍청년동맹에서 활동하다가 길림에서 길성청년회 창설에 관여했다. 아마도 이때 육문중학에 다녔던 김일성과 만났을 수 있지만, 연령으로나 투쟁의 경력으로나 김일성 보다는 한참 선배 그룹에 속했다. 이후 그는 중국공산당 동만특위 조선국내공작위의 야체이카 책임자로 활동하다 검거되었으며, 1939년 출옥 이후 경성콤그룹에 가담했다가 다시 검거되었지만 병보석으로 출옥했다. 1944년 11월 무렵 조선공산주의자협의회를 조직하고 김일수를 소련으로, 김태준을 연안으로 파견했다. 경성콤그룹과 그 후신 조직에서 활동한 그는 해방 후에는 박헌영 중심의 당재건운동만을 당사의 정통으로 간주하는 견해를 비판했으며, 이로 인해 무기정권 처분을 받았다가 ‘자기비판’을 하고 남조선노동당에 참여했다. 1947년 1월 민주주의민족전선 중앙상임위원이 되었으며 2월 이후부터는 북조선노동당과 직접 연결되어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¹ 서중석은 해방 직후 박헌영을 비판하면서 남로당 주류와 결별했던 셈이다. 김일성의 권력이 공고화하면서 선배 세대인 서중석은 김일성의 조직원으로 재역사화되었고, 서중석이 야체이카 책임자로 지도했던 경성제대 출신 젊은 사회주의자들은 식민지 시기 김일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국내 그룹으로 인

장봉기준비결사에는 기성세대의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지식인들이 그만큼 많이 참가하였는데 국내의 비밀결사들 가운데서 지식인들이 그만큼 많이 참가한 조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명 성대비밀결사라고도 하는 조직입니다. 해방전 항간에서 <성대사건>이라고 떠든 것이 바로 이 결사로 해서 생긴 사건입니다. 경성제국대학을 락칭해서 성대라고도 합니다. 이 결사를 배후에서 움직인 것은 우리가 준비시켜 파견한 공작원이었습니다. 경성지구 무장봉기준비결사의 조직자들인 김일수나 서중석은 내가 길림에 있을 때부터 잘 알고 지내던 오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51 이상의 이력은 강만길·성대경 엮음(1996),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pp. 236-237.

정되었던 것이다.

남로당 계열이 숙청되고 다시 1956년에는 이른바 '8월 종파사건'이 일어나면서 김두봉, 최창익 등의 연안파와 박창옥 등의 소련파들이 숙청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숙청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신구현은 과거 자신과 관계가 있었던 인물(그룹)에 대한 비판에 직접 나서기도 했다. 우선 그는 특집 논설들을 통해서 '카프'를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학 전통의 주류로 자리매김한다. 이때의 '카프'는 남로당 계열의 문인들을 배제한 전통이다. 신구현은 1946년 3월에 출범한 '북조선 문학 예술 총동맹'(문예총)을 "건설한 〈카프〉 작가, 예술가들을 핵심으로 일체 진보적 애국주의 문학 예술 역량을 집결"⁵²한 조직으로 설명한다. 과거 카프의 일원이었던 임화와 김남천 등은 북한에서 진행되던 혁명적 문예노선을 파괴하려는 미제 간첩 박헌영 도당의 문화적 '선발대'로 파견되어 반혁명적 파괴 행위를 감행한 세력이었다. 그 증거로 신구현은 "1946년도에 서울에서 부르쥬아 반동 작가들인 립화, 리태준, 김남천 등 몇몇 분자들으로써 반혁명적 문학 예술 단체인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를 조직하고, 소위 문학 예술의 '전국적 중앙'이라고 떠들면서 이를 반대하는 작가, 예술가들을 박해하고 탄압했다."⁵³라고 비판하고 있다. 남로당계에 대한 비판에 더해 종파 사건의 박창옥 등과 그 세력인 기석복, 전동혁, 정률, 홍순철 등의 소련 출신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립화, 리태준, 김남천 등 반동작가들을 지지 옹호하며 그 자들과 사상적으로 결탁"⁵⁴하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임화 등에 대한 비판은 신구현에게는 자기 부정의 글 쓰기이기도 했다. 임화가 운영하던 학예사에서 단행본을 출간했고, 해방 이후에는 역시 임화가 주도한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에 그 자신의 이름

52 신구현(1958. 5.), 「우리 당의 문예 정책과 그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1)」, 『조선어문』, p. 18.

53 신구현(1958. 5.), p. 28.

54 신구현(1958. 5.), p. 28.

도 올라 있었기 때문이다. '8월 종파 사건' 즈음 신구현이 직면한 곤경은 조금 더 직접적이었다. 앞에서, 조선어문연구회의 성과를 설명하는 신구현의 글에서 '조선 어문을 재건하는 것'과 '선진 쏘베트 언어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시 조선어문학계의 중요한 과제였으며, 조선어 문자 개혁을 담은 <조선어신철자법>의 출간과 H.A.마르의 신 언어 이론을 받아들이는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하는 내용을 확인한 바 있다. 신구현은 그 글에서 이들 사업들이 출중한 국어학자이자 당시 김일성종합대학 총장이었던 "김두봉 선생의 엄격한 지도하"에서 이루어졌다고 적었다.

그 글이 쓰여진 지 채 10년이 되지 않아서 8월 종파 사건의 여파로 연안파의 좌장 김두봉은 숙청 당했다. '조선어문연구회'를 확대 재편한 과학원 산하 언어문학연구소의 기관지인 『조선어문』의 1958년 5월호 권두논문 「공화국 창건 10주년을 맞이하는 조선어문학」은 급격하게 변화한 정치적 지형에 따라 과거 조선어문학의 성과가 오히려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 바뀌게 된 사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무기명으로 쓰여진 이 글에서는 과거 조선어문연구회의 기관지 『조선어연구』가 "쏘련의 선진 이론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결함"이 있었는데, "엔. 야. 마르의 비속 맑스주의적 언어 이론이 무비판적으로 소개되었던 까닭"⁵⁵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스탈린의 옹호를 받은 마르의 언어이론은 마르의 사후 수제자인 메시차니노프 등에 의해 유지 발전되었고, 진정한 마르크스주의적인 언어학 이론으로 일컬어지며 소비에트 언어학의 중심 이론으로 군림했었다. 그러다가 스탈린이 1950년 6월 20일에 소련공산당 기관지 『프라우다』에 「언어학에 있어서의 맑스주의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하며 상황이 급변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스탈린 명의로 마르와 마르학과 언어학자에 의한 '신 언어 이론'을 비판하고, 이를 대신하는 마르크스주의의 언어 이론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스탈린 논문의 핵심은 언어를 계급적인 것으로 규정한 마르학파를 비판하고, 계급

55 「공화국 창건 10주년을 맞이하는 조선어문학」, 『조선어문』 1958년 5월호, p. 4.

을 초월하여 사용되는 전 민족적인 도구로 언어를 다시 규정한 데 있었다.

북한 건국 초기에 큰 영향을 끼친 소련의 마르 언어학파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어문 개량을 지도했던 김두봉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권두언은 “반당 종파 분자 김두봉에 대한 아침과 개인 우상화에 대한 서술이 부분적이거나 지면을 더럽혔”다고 지적하고 시야를 과거로 소급하여 “1947년 주로 자기 개인의 ‘학설’이 반영된 〈조선어신철자법〉을 ‘조선어문 연구회’ 이름으로 강압적으로 출판케 한 후, 계속 자기의 사이비 이론에 립각하여 조선 문자 개혁을 실시하려고 타산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의 과학 정책과는 반대로 자유로운 논쟁을 백방으로 억압하며, 자기의 비위에 맞지 않는 학설들을 억압하였다. 이 행정에서 김수경 동무를 비롯한 일부 성실치 못한 언어학자들은 출세욕에 눈이 어두워 김두봉을 우상화하였다.”⁵⁶ 고 실명 비판하고 있다.

이 권두논문을 누가 쓴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1957년 무렵부터 언어문학연구소의 소장은 국어학자 김병제가 맡고 있었다. 그런데 김병제 또한 김두봉의 지도 아래 신구현이나 김수경 등과 함께 문자개혁위원회 활동을 했던 구성원이었다. 달리 말하자면, 위의 논문의 비판은 김두봉의 실각이라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과거 그의 영향 아래 있었던 언어학자들의 자기 비판적 성격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 권두논문의 뒤에 10년 동안의 북한 문예 정책에 대해 검토하며 남로당 계열과 박창옥 등의 소련파 등에 대해 비판하는 신구현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이때부터 신구현은 언어학과 관련된 글들을 더 이상 쓰지 않고, 북한의 문예에 대한 비평과 더불어 본래 전공이었던 고전문학과 창극 등의 고전 전통과 관련된 논의에 집중한다.

56 「공화국 창건 10주년을 맞이하는 조선어문학」, 『조선어문』 1958년 5월호, p. 7.

5. 사회주의 문학 전통과 ‘주체 문예’의 길

신구현의 전문 영역은 고전문학 분야였다. 고전문학 연구자로서 신구현은 봉건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지닌 고전 문학의 전통을 구성하여 지금-여기의 북한 사회주의 문학과 연결짓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949년에 발표된 신구현의 「근대 조선 계몽 사상가들의 역할」은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글이다. 신구현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조선이 국내적으로는 봉건적 상층기구의 완전한 부패와 농업생산력의 침체에 따른 농민 생활의 전면적 파탄에 처했으며 국제적으로는 열강들 특히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지배와 간섭이 노골화되었던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한다. 신구현에 따르면, 이러한 현실에 처하여 “낡은 제도를 개혁하고 거센 침략의 파도를 막아 내려 역사적인 무대에 등장한 인물들”이 바로 “십구세기말기 이십세기 초기의 조선계몽사상가들”⁵⁷이었다. 신구현은 “그들의 공적은 고난 속에서의 결실인 동시에 오늘의 인민적 민주주의 민족문화수립에 있어서 값있는 ‘문화적 밑천’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것들을 새로운 시대의 조명하에 밝혀내지 않아서는 안 된다”⁵⁸고 천명하고 있다.

신구현은 계몽 사상가들의 원천이 되는 실학 사상을 다룬 논문으로 이창원의 「조선근대사연구」, 「갑오농민전쟁의 성격과 그 역사적 의의」, 「20세기초 조선의 대외 관계와 국내정세」 등과 김석형의 「북학론의 발생과 그의 사적 고찰」과 박시형의 「실학자 유형원의 정치적 개혁론」 등을 거론하고 있다. 신구현은 마르크스의 『맑스정치경제학 비판서설』이나 『독일 이데올로기』 등의 저작과 엥겔스의 『공상적 사회주의에서 과학적 사회주의로』를 인용하면서 “19세기말기 20세기초기에 모든 물질적 총화라는 것도 선행한 시대로부터 전하게 된 것으로 일방에 있어서 신시대에 의하여 개변되

57 신구현(1949. 7.), 「근대 조선 계몽사상가들의 역할(상)」, 『역사재문제』 9권, p. 50.

58 신구현(1949. 7.), p. 50.

면서 일방에 있어서는 신시대의 생활 조건을 규정하는 것이며 이를 기초로 한 계몽사상가들의 이데올로기도 역시 선행한 시대로부터 전하여 온 실학파들의 실학사상이 일방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에 의하여 개편되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신시대의 이데올로기로서의 계몽사상에 대하여 일정한 특수적 성격을 가지게 한 것”⁵⁹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신구현은 박은식의 논설들, 김성희의 「자유설」, 현채의 「무능수론」 등 당대 조선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분석하는 글들이 보여 주는 인식이 실학파의 사상 가운데 암시되었다가 갑오농민전쟁을 거치며 정치적으로 종합적으로 진전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실학 사상이 계몽사상가들의 이데올로기적 원천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신구현은 조선 시대의 소설 양식으로부터 계몽기 문학의 원천을 찾고 있다. 그는 “가부장적 봉건가족제도를 비판하고 풍자하기 위하여 ‘홍길동’이란 주인공을 등장”시킨 허균의 『홍길동전』이나 “당시 왕실을 중심으로 한 귀족들의 썩어 빠져가는 부화한 생활과 한이 없는 향락 생활을 풍자하기 위한 창작”⁶⁰인 김만중의 『구운몽』과 『사씨남정기』 등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는 “십여편의 단편소설에서 절망상태에 빠진 봉건사회의 제반문물제도에 대하여 특히 봉건사대부들의 허위허식과 부화한 생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신랄한 풍자와 조소를 퍼붓고 있으며 새로운 사상과 제도를 선동선전하고” 있는 박지원의 소설들을 고평한다. 그에 따르면, “「호질」, 「량반」, 「김신선」, 「역학대도」 등이 주로 양반계급을 조소하고 풍자한 것이라고 하면, 「허생원」, 「예덕」, 「광문」 등은 새로운 인간에 의한 새로운 사상과 제도를 선전”⁶¹하는 작품들이다. 이후 1950년대 내내 신구현은 연암의 사상가적 면모와 그의 작품의 사상성, 미학적 특질 등에 대한 글을 여러 편 발표하고 있

59 신구현(1949. 7.), p. 51.

60 신구현(1949. 7.), p. 57.

61 신구현(1949. 7.), p. 58.

다.⁶² 또한, 사실주의적이고 애국주의적인 고전 작가로 이제현, 김만중, 박인로, 임제, 신재효 등을 호명하고 있다.⁶³

신구현은 ‘고상한 사실주의 전통’의 고전문학 작가 및 작품을 가려내어 지금-여기의 문학이 계승해야 할 전통으로 구성하고자 했다. 이러한 사실주의 전통은 가까이로는 식민지 시기의 카프를 통해 발견된다. 신구현은 「부르쥬아 반동문학을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 조선 프로레타리아 예술동맹(카프)」에서 “조선 프로레타리아 예술 동맹(카프)은 오늘 우리 문학과 혈연적인 관계”에 있으며, “‘카프’의 선진적인 작가들은 오늘 우리 문학의 핵심”⁶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구현은 특히 당이 “‘카프’ 문학의 그의 사상성과 예술성에 있어서 해방 후 문학과 직접적인 계승 관계에 있기 때문에 ‘카프’ 유산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⁶⁵했다고 설명한다. 신구현에게 있어서 “‘카프’ 문학은 그 이전의 사실주의 조선 문학의 합법적인 계승이며 발전이기 때문에 그 연구는 우리 문학의 고상한 전통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
- 62 신구현이 발표한 연암 관련 글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연암 박지원의 미학사상에 대하여」, 『조선문학』, 1954. 12.; 「연암 박지원의 사상」, 『력사과학』 4, 1955. 4.; 「근세 조선의 진보적 사상가 연암 박지원」, 『근로자』, 1955; 「연암 박지원에 대하여」, 『조선문학』 101, 1956. 1. (한설야, 김명수, 신구현, 김하명이 함께 참여한 연암 박지원 특집); 「연암 박지원의 미학 사상과 그의 창작의 사상예술적 특징」, 『조선어문』(1957년 1호), 1957. 1.; 「연암 박지원의 문예 비평: 특히 그의 <사의지법(寫意之法)>을 밝힘」, 『조선문학』 115, 1957. 3.; 신구현, 「전통과 혁신, 내용과 형식: 연암 박지원의 로작을 읽고」, 『조선문학』, 1960. 12.
- 63 신구현이 관심을 갖고 발표했던 중요 고전 작가에 대한 글들은 다음과 같다. 신구현, 「리제현」, 『문학신문』, 1957. 3.; 「서포 김만중과 『구운몽』: 그의 탄생 320주년을 맞이하여」, 『조선문학』, 1957. 10.; 신구현, 「신재효와 그의 유산」, 『조선예술』 1957년 10월호; 김만중, 신구현 주석, 『구운몽』, 1957. 11.; 『고전작가론』 2, 평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9(공저)(신구현은 「로계 박인로에 대하여」를 집필); 상민·김찬순·신구현 공역, 「리제현작품선집」, 평양: 국립문학예술서적출판사, 1960; 「열렬한 애국자 걸출한 시인: 박인로 탄생 400주년에 제하여」, 『조선문학』, 1961. 8.; 「립제의 문학 창작과 형상적 특징: 그의 탄생 415주년을 맞으며」, 『문학신문』, 1964. 11.
- 64 신구현(1956. 6.), 「부르쥬아 반동문학을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 조선 프로레타리아 예술동맹(카프)」(상), 『근로자』 1956년 6호(통권 127호), p. 70.
- 65 신구현(1956. 6.), p. 71.

다. 즉, 봉건 왕조 시대의 사실주의 고전 작가들의 작품과 이러한 전통을 계승한 카프를 연결지으며 ‘고상한 사실주의의 전통’의 계보를 형성하였다. 이처럼 1950년대 중후반 무렵까지 신구현은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에서 조선의 문예와 문자, 사상을 파악하여 사실주의의 전통을 재구성하려는 작업을 지속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의 고전에 대한 강조는 이른바 주체 사상이라는 폐색의 회로로 수렴된다. 그것은 북한 사회의 일련의 정치적 변동과 궤를 같이 한 것이었다. 이러한 폐색의 경로를 살펴보도록 하자.

앞서 언급했듯이, 신구현은 1949년의 「우리 어문의 통일과 발전 사업에 있어서 우리들 조선 어문 학자들의 당면 과업」에서 “김일성 장군의 말씀은 우리를 고무시키었으며, 선진 쏘베트 언어학의 정점과 혁명적 리론은 크나큰 도움과 교훈으로 되었고 김두봉 선생의 정확한 언어학적 견해는 우리들의 사업 추진에 직접적인 영향”⁶⁶을 주었다고 언급했다. 신구현이 북한 정권 설립 초기의 언어 규범의 확립 과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헌사를 바친 세대상 중 첫 번째인 선진 쏘베트 언어학, 즉 마르 학파의 ‘신 언어 리론’은 스탈린의 언어학 논문의 직접 비판으로 청산되었고, 두 번째인 김두봉은 ‘종파 사건’을 거쳐 숙청되면서 북한 언어 정책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던 그의 유산도 함께 부정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김일성 장군의 말씀”뿐이었다.

알다시피 북한 정권이 김일성 유일 체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주체’라는 이데올로기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북한에서 주체사상의 출발점은 1955년 12월 28일에 김일성이 당의 선전 선동 활동가들 앞에서 했다고 하는 연설로 알려져 있다. 이 연설에서 교조주의 비판과 ‘주체 확립’이 언급된 이래, 1960년대 초중엽 중·소 대립의 격화 등에 따른 외교면에서의 자주노선 확립을 배경으로 1962년 처음으로 그 이데올로기를 ‘주체사상’이라 명명하고 초기 단계의 정식화를 거친 뒤, 1960년대 후반 이후 유일사상으로

66 신구현(1949. 12.), pp. 21-22.

자리매김되며 ‘김일성주의’로 체계화되었다. 1955년의 연설은 1960년에 발간된 『김일성 선집』 제4권(조선로동당출판사)에 「사상 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활자화되었다.⁶⁷ 명문화되기 이전인 1950년대 중후반부터 김일성의 주체에 대한 강조는 이미 북한 사회에서 강력한 지침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56년에 발표된 신구현의 「리태준의 『신문장 강화』의 반동성」은 남로당 계열의 숙청 및 김일성의 주체의 강조가 문예의 측면에서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가를 살필 수 있는 글이다. 이 무렵 남로당 계열의 임화, 김남천, 이태준 등의 문학을 부르조아 미학으로 규정하고 청산하려는 작가동맹 차원의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이 글은 그 일환으로 작성되었다. 신구현은 이태준 비판 중에서도 1949년 발표한 『신문장 강화』를 비판하는 역할을 맡았다.⁶⁸ 신구현은 『신문장 강화』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에 앞서 이태준이 해방 전 “반일 문학 예술 단체인 조선 프로레타리아 예술동맹(카프)을 파괴할 목적으로 악명 높은 부르조아 반동 작가들을 모아가지고 반동 문학 단체인 ‘구인회’를 조직하고 ‘순수 문학’을 목이 터지도록 울부짖으면서 우리 인민을,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을 계급적으로 무장 해제시키고 부르조아 반동 사상에 물젖게 하기 위하여 광분”⁶⁹하는 것으로부터 그 문학적 경력을 시작했다고 쓰고 있다. 이후 이태준이 임화와 김남천과 함께 이른바 ‘미제의 고용 간첩’인 박현영과 이승엽의 심복으로 해방 이후에는 “공화국 북반부에 기여 들어와 조선 로동당의 문예 정책을 반대하고 반동적인 부르조아 작가 예술가를 규합하여 그들의 ‘지도자’로 나섰으며, 해독적인 작품을 통

67 와다 하루키는 이 문건을 사상비서 황장엽과 함께 김일성이 새로 쓴 작문이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와다 하루키(2019), 남기정 옮김, 『와다 하루키의 북한현대사』, 창비, p. 141.

68 1949년 북한의 청년생활사에서 간행된 『신문장강화』는 1952년 재일조선인교육자동맹문화부(일본)과 연변교육출판사(중국)에서도 동시에 출판되어 재일조선인과 재중조선인의 글쓰기 교본으로 활용되었다.

69 신구현(1956), 「리태준의 『신문장 강화』의 반동성」, 『문예전선에 있어서의 반동적 부르조아 사상을 반대하여』, 조선 작가 동맹 출판사, p. 174.

하여 부르조아 반동 사상을 인민들 속에 전파하기에 광분”하였다고 비판한다.

신구현은 그러한 비판의 중요한 증거가 “반동적 부르조아 사상을 인민들 속에 전파할 목적”으로 쓴 저작인 『신문장 강화』라고 주장한다. 신구현에 따르면, 이태준은 “중국의 어떤 교수”의 『문학 개량 추의』라는 논문을 그대로 옮기고 있는 데, 모르는 척 밝히지 않은 그 교수가 바로 “제국주의 반동문학, 제국주의 반동철학을 옹호하고 주장하여 나선 중국의 악명 높은 반역자 호적(胡適)”이라는 사실 그 자체가 이 저작의 반인민성의 증거이다. 신구현은 이태준이 “‘카프’의 문학 운동을 반대하여 미쳐 날뛴 것처럼, 호적 역시 중국 혁명을 배반하고 중국의 혁명적 문학운동인 ‘5·4’ 문학 운동을 극력 반대하여 나섰던 것”⁷⁰에서 이태준과 호적의 반동적 유사성을 발견하고 있다.

신구현은 이태준이 호적의 문학개량 조건의 7개 조항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고 지적하며, 그중 세 가지 조항을 들어 그 반동성을 설명한다. 첫째는 ‘언지유물’(言之有物)이다. 신구현은 ‘유물’(有物)은 “사물이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 호적의 해석에 의한다면 이는 “‘사상’과 ‘감정’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사상’과 ‘감정’은, 곧 부르조아적 사상과 감정”이므로, “리태준의 ‘언지 유물’은 부르조아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가 글짓기에 필요하다”는 것⁷¹을 강조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다음으로 든 사례는 호적의 “부작무병지신음”(不作無病之呻吟)이라는 항목이다. 신구현은 “병없이 신음하는 글을 짓지 말라”는 뜻인 이 항목을 활용하여 이태준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의 폭로성과 혁명적 로만찌까를 외국 중상”했다고 비판한다. 신구현의 해석에 따르면, 호적이 중국의 “사실주의적 ‘5·4’문학의 폭로성과 고상한 로만찌까를 ‘병없이 신음하는 소리’라고 중상 반대”했기 때문에 그와

70 신구현(1956), p. 175.

71 신구현(1956), p. 177.

등가의 위치에 있는 이태준이 이 항목을 제시한 것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을 비판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는 논법이다. 이러한 신구현의 비판은 과도한 비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말고 사물을 매개로 하여 감정과 사상을 형상화할 것을 강조하거나 사상성을 개연성 없이 직접적으로 노출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항목을 곧바로 부르조아적이고 반인민적 독소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항목 보다 더욱 주목할 대목이 바로 호적의 <문학개량> 7개 조항 가운데 “불모방 고인”(不模倣古人)의 항목을 그대로 활용한 이태준에 대한 비판이다. 신구현은 “고인을 모방하지 말라”는 ‘불모방 고인’을 통해서 호적이 “중국의 찬란한 문학 유산을 부정 모독하려고 꾀하였던 것”이며, “중국 문학은 그 유산이 빈곤하기 때문에 그 ‘문학개량’을 위하여서는 우선 ‘서양문학’(서구라파 부르조아 문학)을 대대적으로 번역하여 놓아야 한다는 것”⁷²을 강조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신구현에 따르면, 이태준은 호적의 ‘불모방 고인’을 조선에 적용하여 민족 고전인 <춘향전>에 대해서 “뜻에 충실하지 않고, 음조에만 붙잡히어 랑독하기에는 흥취가 나게 되었으나 뜻에는 거짓이 많아지였다. 이런 소설은 산문인 소설이 아니요, 운문인 서사시라 할 것”이라고 그릇된 견해를 제시했다. 이러한 견해는 젊은 독자들에게 “춘향전은 내용이 없”으며 “운문인 서사시는 뜻에는 거짓이 있다”⁷³는 해로운 인상을 부식했다. 또 다른 사실주의적 고전 문학 작품인 <장화홍련전>에 대해서도 이태준이 동일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태준의 ‘불모방 고인’의 그릇된 적용은 시문학의 전통도 왜곡하고 부정하는 것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신구현의 진단이다. 즉, 이태준은 “서정문이라 하면 과거에는 애달프고 달콤한 감상(感想)만을 쓰는 글로 알아온 폐가 있다. 그 시대에는, 정의를 레찬하며 불의를 미워하는 격한 감정은 표현

72 신구현(1956), pp. 178-179.

73 신구현(1956), p. 181.

할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정서를 주로 하는 글은 절로 애상(哀傷)을 주제로 하는 데 치우치기 쉬웠던 것”⁷⁴이라고 설명했는데, 신구현은 이러한 규정이 “정의를 레찬하고 불의를 미워하였으며, 힘찬 폭로성과 혁명적 로만찌까로 벽찬 ‘카프’의 시문학을 위시로 과거의 고상한 시작품을 부정하려는 것”⁷⁵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처럼 신구현은 이태준의 『신문장강화』를 호적과 연관지어 반동적 부르주아 문학론을 전파하는 저작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문장강화』는 해방 이후 북한에서 이루어진 민주개혁과 소련과 조선의 친선관계를 묘사하고,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한반도를 대표하는 국가임을 선전하는 예문들을 가득 싣고 있는 저작이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예문들은 이태준이 남로당과 소련과와 관련된 부르주아 문학자로 비판되면서 외면되었으며 그 안에 섞여 있던 부르주아적 특성만이 강조되었다.⁷⁶ 특히 주목할 부분은 호적의 잘못된 견해를 활용하여 고전문화유산이 아니라 서구의 전범을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비판하고 있는 대목이다. 즉, 이 글에서 신구현은 외국 것을 축출하고 ‘우리 것(주체)’을 강조하는 인식과 어법을 선보이며 이태준을 주체를 몰각한 작가로 비판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 권력이 제시한 지침이기도 하다. 1955년의 연설에서 김일성은 “인민학교에 가보니 사진을 걸었는데 마야쑤쓰끼, 뿌슈긴 등 전부 외국사람들뿐이고 조선사람이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교양해서야 어떻게 민족적 자부심이 생기겠습니까?”라며 “쏘련식이 좋으니 중국식이 좋으니 하지만 이제는 우리 식을 만들 때”⁷⁷라고 강조했다. 김일

74 신구현(1956), p. 182.

75 신구현(1956), p. 182.

76 남로당과의 관련 소련과의 관련 속에서 이태준이 비판받고 숙청된 과정에 대해서는 배개화(2011), 「문학의 희생: 북한에서의 이태준」, 『한국현대문학연구』 34, 한국현대문학회, pp. 270-276.

77 와다 하루키(2014), pp. 141-142.

성이 강조한 ‘우리식’은 이후 사상과 역사, 문학과 학문의 전 영역으로 확산된다. 이 연설에서 김일성은 정약용과 박지원 등 조선시대 실학자들을 “우리나라의 선진적 학자, 작가들”이라고 적극적으로 평가했다. 연암 박지원에 대한 신구현의 관심은 김일성의 연설 이전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이후 김일성이 제시한 ‘우리식’ 고전문화유산을 세우는 ‘주체’의 관점으로 수렴된다.

신구현이 1960년에 발표한 「김일성 동지의 혁명적 문예 사상」은 1955년 이래 김일성의 주체에 대한 강조가 문예의 영역에서 어떻게 작동하게 되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글이다. 신구현은 “혁명 문학 예술이 우리 문예 사상에서 차지하는 의의는 실로 거대”하다며, 김일성의 항일 무장 투쟁과 관련된 ‘혁명 문학 예술’을 고평하고, 그것이 “김일성 동지가 령도하신 항일 무장 투쟁에 고무되어 개화 발전된 ‘카프’의 성과와 함께 해방 후 우리 문학 예술이 직접 계승한 빛나는 전통”⁷⁸이 되었다고 제시한다. 즉 카프를 김일성의 지도와 영향 속에 두면서도 그것이 항일 무장 투쟁 문학과 함께 혁명 문학의 또 다른 전통을 구성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을 구성하면서 “실로 김일성 동지는 이미 1930년대에 문학 예술 영역에서도 맑스-레닌주의 보편적 진리를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그를 풍부화시키는 모범을 보여 주었다.”라고 칭송하고 있다. 김일성에 대해 고평하지만, 아직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풍부화한 실천가의 면모를 부각시키는 데 방점을 두었다.

이어서 신구현은 김일성의 노작 「사상 사업에서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에서 “... 박창옥 등이 범한 과오도 그들이 조선 문학 운동의 역사를 부인한 데 있습니다. 그들의 안중에는 ‘카프’에 참가한 우수한 작가들의 투쟁도 없고 박연암, 정다산 기타 우리 나라의 선진적 학자 작가들의 우수한 작품도 없습니다. ... 우리는 이런 것을 깊이 연구하고 광범히 선전하라고

78 신구현(1960. 8.), 「김일성 동지의 혁명적 문예 사상」(1), 『조선문학』, p. 21.

하였는데 이들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⁷⁹라고 지적하고 있는 김일성의 ‘말씀’을 인용한다. 이태준 등을 비호했던 박창옥 등 소련파들에 대한 공격에 이어서 다시 김일성의 5차 전원회의의 보고 「로동당의 조직적 사상적 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에서 다음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도 우리의 선조들이 써 놓은 력사나 지리나 기타 군사,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고귀한 유산들을 맑스-레닌주의 견지에서 분석하고 그를 섭취하여 발전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귀한 유산들을 집어 치우는 아주 용서 못할 엄중한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어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옛말이나 노래도 남의 것은 다 좋고 자기 것은 다 못쓰겠다고 하는 현상들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고귀한 과학 문화의 유산에 대한 이러한 참을 수 없는 현상들과 앞으로 견결히 투쟁하여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자기의 고귀한 과학 문화의 유산을 옹계 섭취하며 그를 발전시키는 기초 위에서만이 타국의 선진 과학, 문화들을 급히 또는 옹계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겠습니까.⁸⁰ (밑줄: 인용자)

이러한 김일성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신구현은 “김일성 동지는 여기서 맹목적으로 고귀한 전통을 부인하는 사상, 맹목적으로 외국 것을 숭배하는 사상의 해독성을 규탄하면서 문예학의 주체성을 천명”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문예학의 주체성’, 즉 ‘주체의 문예학’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불과 몇 해가 지나서 김일성이 고평했던 우리식의 선진적 학자나 문인들에 대한 평가도 급격하게 바뀌게 된다. 1967년 5월, 당 전원회의에서 갑산계의 당내 고위직 등에 대한 비판이 행해졌다. 그때 숙청된 사람

79 신구현(1960. 10.), 「김일성 동지의 혁명적 문예 사상」(3), 『조선문학』, p. 8(『김일성 선집』 4권, 327페이지, 조선 로동당 출판사, 1960).

80 신구현(1960. 10.), p. 9(『김일성 선집』 4권, 조선 로동당 출판사, 1960, pp. 400-401).

중 한 명인 박금철에게 씌어진 혐의의 하나는 당 간부들에게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읽게 하여 ‘봉건 유교 사상’을 유포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조처를 받아서 ‘혁명 전통’에 반하는 ‘봉건 유교사상’에 대한 비판이 진행되었고, 실학과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내려지게 되었다.⁸¹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우리식’의 ‘주체’에 포함되었던 실학과 카프도 진보적 사상과 사실주의적 혁명문학이라는 위상을 잃고 배제되었던 것이다.

6. 주체 문예학의 어떤 귀결: 단군릉과 고조선 서사

식민지 시기로부터 1966년 무렵까지 걸쳐 있는 신구현의 행적과 그가 남긴 글을 검토해 보았다. 주체사상이 유일사상으로 등장한 1960년대 중후반 이후에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혁명문학 이외에는 전통으로 간주하지 않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경성제대 출신 사회주의 계열의 고전문학 연구자라는 신구현 개인의 개성이 드러나는 글은 더 이상 보기 어려운 시대였다.

신구현의 몰년은 정확치 않지만, 리규춘의 ‘장편실화’ 『삶의 매부리』와 『신념과 인간』에서 신구현이 김석형과 박시형, 김수경과 정해진 등 월북한 경성제대 동창들과 더불어 1990년대까지 생존하여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대에도 신구현은 공식적인 인쇄물에 그 이름을 남기고 있다. 이를테면, 신구현·리규춘이 함께 쓴 『피 묻은 청동단검』(금성청년출판사, 2002), 『고조선의 마지막 밤』(금성청년출판사, 2002) 등 고조선을 배경으로 한 두 편의 ‘장편사화’는 그 사례다.

북한의 학계에서는 1993년 평양 인근에서 고분을 발굴하고 그곳에 있

81 이종석(1995), 『조선로동당연구: 지도사상과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역사비평사, pp. 303-311.

던 유물을 측정하여 그것을 단군 유골로 확정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어서 대규모의 단군릉이 조성되었다. 김석형의 삶을 그린 『신념과 인간』에서는 고조선의 수도를 평양으로 확증하고 단군릉을 발굴한 것이 김일성의 교시에 의한 것이라고 서사화하고 있다. 단군릉 발굴과 조성은 북한 주체사학의 성과로 거론되고 있으며, 급기야 “단군 왕검이 단군 조선의 시조라면 위대한 수령님은 사회주의 조선의 령명하신 시조”⁸²라고 선언된다. 더 나아가 북한 학계에서는 이른바 ‘대동강 문명’을 세계 5대 문명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⁸³

단군릉의 발굴과 역사화에 경성제대 출신의 김석형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면, 역사소설을 통해 그러한 인식을 보급하는 데에서 경성제대 출신의 고전문학자 신구현이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각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가 리규춘과 함께 쓴 두 작품은 조선사의 기원인 고조선의 멸망 시기에 한 나라에 대적했던 충신인 대장군 ‘성기’의 삶과 죽음을 조망하는 내용이다. 고조선의 마지막 왕인 우거왕과 대장군 성기가 반역자들에 살해당하고 왕검성이 함락된 뒤, 고조선의 멸망을 저지하는 데 동참했던 노예 출신의 저항군의 잔류 세력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던 고구려로 향하면서 서사가 끝나고 있다.⁸⁴ 코민테른의 국제주의 노선을 따르며 식민지 해방을 희구하던 청

82 리규춘(2001), p. 148.

83 홍종욱은 북한의 역사학과 주체사관이 민족이라는 보편적 주체를 추구한 점에서 한국 근대 역사학의 흐름 속에 존재했다고 이해하면서도, 단군 민족주의, 대동강 문명론을 거치면서 사료와 실증을 경시한 채 혈통과 민족이라는 이념만을 내세우며 역사학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형국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홍종욱(2022), 「주체 사관에서 인민과 민족의 자리」, 『역사비평』 140, 역사문제연구소.

84 리규춘이 김수경의 삶을 소재로 쓴 『삶의 메부리』(1996)에서는 신구현이 경성제대 시절부터 “단군신화를 강의할 때 늘 감동있게 묘사하곤 하던 신화의 화려한 수레”(p. 31)인 ‘오룡차’를 언급하고 있다. 이 실화소설이 1996년에 간행된 사후적인 이야기라는 점에서 모든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생존해 있던 경성제대 동문들인 김수경, 김석형, 박시형 등은 물론 신구현 본인의 증언 등을 토대로 서사가 꾸러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년 사회주의자 신구현은 ‘주체의 길, 고립의 길’을 따라서 그 말년에는 주체 역사학이 발굴한 단군 조선의 서사화에 매진했다. 국제적 사회주의로부터 한민족의 시원으로 회귀하는 이러한 (집단적)궤적에 대한 검토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 둔다.

참고문헌

1. 자료

- 「金大(김일성대학)교원 이력서, 문학부」(총115쪽), NARA RG 242 SA 2011 Box Item 31.
 신구현 역주(1939), 『조선문고 1-5 역대여류시가선』, 학예사.
 신구현, 「시인 난설현 허씨」, 『여성』, 조선일보사출판부, 1939. 12.
 신구현, 「울곡선생의 어머니 신사임당평전」, 『여성』, 조선일보사출판부, 1939. 9.
 신구현·리규춘(2002), 『조선역사인물이야기그림책 성기(2) 고조선의 마지막 밤』,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신구현·리규춘(2002), 『피문은 청동단검』,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2. 논저

- 강만길·성대경 엮음(1996),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김태윤(2020), 「북한 간부이력서를 통해 본 일제 말 사회주의 운동과 네트워크의 연속성: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독서회 참여자를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김태준, 「조선학의 국학적 연구와 사회학적 연구」(상~하), 『조선일보』 1933.5.1.~5.2.
 리규춘(1996), 『장편실화: 삶의 메부리』,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배개화(2011), 「문학의 회생: 북한에서의 이태준」, 『한국현대문학연구』 34, 한국현대문학학회, pp. 270-276.
 신주백(1991), 「박헌영과 경성콤그룹」, 『역사비평』 13, 역사문제연구소.
 와다 하루키(2019), 남기정 옮김, 『와다 하루키의 북한현대사』, 창비.
 이종석(1995), 『조선로동당연구: 지도사상과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역사비평사.
 이충우·최종고(2013), 『다시 보는 경성제국대학』, 푸른사상.
 이타가키 류타(2024), 고영진·임경화 옮김, 『북으로 간 언어학자 김수경』, 푸른역사[板垣竜太(2021), 『北に渡った言語學者 金壽卿(1918-2000)』, 人文書院].
 장문석(2009), 「출판기획자 임화와 학예사라는 문제틀」, 『민족문학사연구』 41, 민족문학사연구소.

- 전영선(2004), 『북한을 움직인 문학예술인들』, 역락.
- 정종현(2021), 「국어국문학과 조선어문학의 분단: 설립 초기 국립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와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의 비교연구」, 『동악어문학』 83집, 동악어문학회.
- 통일부(2002), 『북한 기관·단체별 인명집 2002』, pp. 367-368.
- 홍종욱(2022), 「주체 사관에서 인민과 민족의 자리」, 『역사비평』 140, 역사문제연구소.
- 홍종욱(2021), 「제국의 사회주의자: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 이청원의 삶과 실천」, 『상허학보』 63, 상허학회.
- 홍종욱(2011), 『戰時期朝鮮の轉向者たち』, 有志舎.
- 『김일성전집』 4(199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원고 접수일: 2024년 4월 10일, 심사완료일: 2024년 5월 4일, 게재 확정일: 2024년 5월 10일

ABSTRACT

Shin Gu-hyeon, a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cholar Who Went to North Korea

Jeong, Jong-hyu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eal a cross-section of modern Korean intellectual history through the life and academic trajectory of Shin Guhyeon, a Korean literature scholar who defected to North Korea. Tracing the biography of a long-lived intellectual can become a methodology in itself. The life of Shin Gu-hyeon, born in 1912, which traversed colonialism, liberation, division, and the Cold War, and continued into the 2000s, is an example of the refraction and transformation of modern Korean knowledge. This article examines the reading club activities that Shin Gu-hyeon had with his fellow students from the 11th class of the Arts Department during his time at Gyeongseong Imperial University. Next, it examines how his career developed at the Korean Language Society after graduation and how he published *Yeoryu Siseon* at the curatorship run by Im Hwa. It also traces the process of his being imprisoned for the Joseon Communist Party reconstruction movement, then being released and Joseon achieving liberation.

After liberation, Shin Gu-hyeon worked as the principal of the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Inha University

Wonsan Political School, and was appointed as a professor with the establishment of Kim Il-sung University. After his appointment, h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North Korea's language reform project by serving as the chairman of the faculty cell committee of Kim Il-sung University and the chairman of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Research Association. As he went through a series of purges after the Korean War, Shin Guhyeon's academic identity also underwent changes. From an early age, Shin Gu-hyeon was interested in and conducted research on Joseon's progressive traditions and subjectivity, such as classical literature such as the Silhak school and the progressive realism of KAPF. As the mid-to-late 1950s progressed, his academic work gradually shifted towards the independent literary arts emphasized by Kim Il-sung. Beyond the 1960s, Shin Gu-hyeon, who had once been a Marxist-based classical literature major at Gyeongseong Imperial University, transformed into a Juche literary scholar who preached Juche ideology.

Keywords Shin Gu-hyeon, Gyeongseong Imperial University, Kim Il-sung University,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Research Society, Juche Literary Studies, Gojoseon Narrative